



<양현종>

호랑이, 쌍둥이만 만나면 신난다



■ 물고 물리는 '천적의 법칙'

양현종·김상현 투타 선봉에서 8할 승리 이끌어
 곰 앞에선 4승8패 위축... 나지완 독수리 사냥꾼

8개 구단이 얽혀있는 프로야구에도 먹이사슬은 존재한다.

잘나가는 KIA 타이거즈, 올 시즌 LG 트윈스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닌다. 4일 현재 KIA는 LG와 14경기를 치러 무려 11승을 독식했다. 전체 승의 20%를 LG전에서 기록한 셈이다.

방망이도 LG마운드 앞에서는 불을 뿜었다. 14번의 대결에서 97점을 뿜으며 경기당 평균 7점의 득점력을 과시했다.

반면 마운드는 잔물 투구의 전형을 보여줬다. LG전 3차례 영봉승을 장식한 마운드는 9번의 대결을 2실점 이하로 막는 호투를 선보였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은 LG와의 4경기에서 패없이 3승을 기록하며 재미를 봤다. 특히 최

근 5경기 평균자책점이 6.28에 이를 정도로 부진에 빠졌던 양현종은 4일 경기에서 8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며 6월14일 이후 7승째를 신고했다.

LG가 양현종에게 승을 가장 많이 선물했다면 한화는 탈삼진의 제물이 됐다. 양현종은 한화전에서 18과 3분의1이닝을 던져 31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한 이닝에 1.7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상현은 2차례 결승타를 때려내는 등 0.364의 타율로 1개의 홈런과 5개의 2루타로 친정팀 LG를 초토화시켰다. 김상현은 삼성킬러이기도 하다.

지난주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 김상현은 11타수 7안타(2홈런)로 6타점을 만들어 팀 선두 등극의 1등 공신이 됐다. 시즌 타율이 0.292인 김상현의 삼성전 타율은 0.432까지 치솟는다. 홈런 4개를 앞세워 16타점도 뽑아냈다.

KIA의 '붉은괴' 나지완과 안치홍은 한화와 SK 사냥꾼이다. 4일 현재 1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나지완(타율 0.263)은 한화전에서 7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17타점을 쓸어들었다. 타율도 0.340을 기록하고 있다.

'아기호랑이' 안치홍은 SK만 만나면 들쭉날쭉하다. 시즌 타율이 0.231에 머물고 있지만 SK전 타율은 0.372. 김광현·전병두 등 내노라하는 좌완에게 홈런을 뺏는 등 SK '벌떼 마운드'를 상대로 4개의 대포를 쏘아올렸다.

4승8패로 KIA에 가장 많은 패를 안겨준 두산과의 대결에서는 두 투수의 표정이 엇갈린다. 휴업중인 마무리 한기주는 10.50의 평균자책점으로 두산에 3패를 당하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로페즈는 두산과 가장 많은 이닝(31과 3분의1)을 소화했지만 평균자책점이 1.44에 불과하다. 삼진도 24개를 뽑아내며 2승을 챙겼다.

히어로즈도 KIA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다. 세차례 연직패를 당하는 등 KIA는 히어로즈와의 전적에서 6승7패로 뒤져있다. 하지만 난적 히어로즈가 반가운 이들도 있다.

필승의 언더 게투 손영민과 유동훈이 그 주인공이다. 손영민은 히어로즈와 8번의 대결에서 0.71의 평균자책점으로 3홀드 11탈삼진을 기록했고, 유동훈은 0의 평균자책점으로 3세이브 2홀드 8탈삼진을 기록했다. '영웅'잡는 영웅들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



5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 군산상고의 봉황기 16강전에서 9회초 광주일고의 강민국이 유창식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은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광주일고 '역전의 명수'에 역전승

봉황대기 고교야구 군산상고 꺾고 8강

광주일고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와의 호남대비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펼쳐 봉황기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5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린 제39회 봉황기전국고교야구대회 군산상고와의 16강전에서 9회 유창식의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4-3으로 승리를 거뒀다. 선취점은 군산상고가 가져갔다. 1회말 좌전안타로 출루한 군산상고의 박계현이 희생번트와 도루로 3루를 밟은 뒤, 견제구가 빠진 틈을 타 홈

에 들어왔다. 0-1로 뒤지던 3회초 광주일고의 반격이 시작됐다. 군산상고의 에이스 박종훈으로 부터 몸에 맞는 볼과 볼넷을 얻어내며 무사 1·2루, 김주덕과 강백산이 범타로 물러났지만 5번 손준혁의 2타점 2루타가 터지면서 2-1이 됐다.

그러나 이어진 3회말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하며 2-2의 기싸움은 전개됐다.

6회초 다시 광주일고가 1점을 뺏으며 달아났지만 8회말 군산상고가 동점을 만들어 양팀은 3-3에

서 9회를 맞았다.

1사 무사에서 청소년대표 강민국이 우중간을 꿰뚫는 3루타를 터트리며 광주일고 쪽으로 승기를 가져왔다. 끝이 유창식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3루주자 강민국이 홈에 들어와 4-3이 됐다.

8회 1사에서 마운드에 올라던 광주일고 에이스 심동섭은 9회 백진영에게 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광주일고는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인천고를 꺾고 8강에 진출한 제주고교와 준결승행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자신의 경기력 믿어야 좋은 결과”

WGC 출전 앤서니 김, 교포 이진명에 조언

재미교포 골프 선수인 앤서니 김(24·나이키 골프)이 뉴질랜드 교포인 이진명(19·캘러웨이)에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너무 휘둘리지 마라”는 조언을 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골프장(파70.7천400야드)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에서 출전하는 앤서니 김과 이진명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고민

을 털어놓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주고받았다.

WGC 사상 최연소 출전 선수가 된 이진명은 “컷 탈라이 없기 때문에 부담도 훨씬 덜하다. 또 세계 50위 이내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하게 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주위에 많은 프로나 코치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지만 어느 말이 맞고 또 어



앤서니 김

면 것들은 틀린 것이지 헛갈린다”고 말했다.

이진명은 “대회 전에 어떤 조언을 들으면 거기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면 혼란이 생긴다. 어떤 조언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들어온 앤서니 김은 “대니(이진명의 영어 이름)는 훌륭한 선수지만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다. US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와 조니워커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지만 주위로부터 이런 관심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위로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앤서니 김은 “그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것이다. 자신의 경기력을 믿고 스스로 배워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단뛰기 김덕현 결선진출 기대

<광주시청 소속>

세계육상선수권 15일 독서 개막

15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유럽에서 담금질 중인 한국 육상이 10일 결선지에 입장한다.

6일부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핀란드 코르타네, 이탈리아 포미아에서 전지훈련해온 대표팀은 10일 베를린에 모인다.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총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육상은 8개 종목에서 남자 15명, 여자 5명 등 총 20명이 세계선수권대회 무대를 밟는다.

강원도 횡계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마라톤 대표팀은 지난달 14일 스위스로 장소를 옮겨 고지 적응 연습을 마치고 현재 남녀 모두 완주가 가능하도록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올림픽센터에서 선진 기술을 배워온 남자 110m 허들의 희망이

정준(안양시청)도 열흘 전 독일 쾰른의 IAAF 공인 훈련센터에 홀로 입소, 컨디션을 조율 중이다.

연맹에서 이번 대회 결선 진출에 희망을 건 이들은 이정준과 남자 멀리뛰기, 세단뛰기에 출전하는 김덕현(광주광역시청), 여자 멀리뛰기 정순옥(안동시청) 등 4명과 남자 마라톤이다.

남자 마라톤은 2년 전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 선수 상위 3명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단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2011년 대구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한국 육상은 이번 대회에서 최대한 많은 선수가 결선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남 상남 연맹 전무는 “이정준은 개인 최고 기록인 13초53을 뚫으면 16강까지도 가능하다. 김덕현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각각 8m20과 17m10을 뛰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마라톤 개인 입상은 힘들지만 단체전은 메달을 노려볼만 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세계청소년태권도 캠프

오늘 서울·무주서 개막

세계 39개국에서 14~17세 태권도 유망주 207명과 임원 68명이 참가하는 제1회 세계청소년태권도 캠프가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과 태권도공원이 조성된 전북 무주에서 열린다.

세계태권도연맹(WTF)과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캠프에는 2010년 싱가포르 유스 올림픽에 대비해 해당 연령대 선수들이 리허설 격으로 친선경주대회를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6일 오후 2시부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WTF 주관으로 '태권도를 통한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OVEP)' 실천포럼이 진행된다.

7일 무주 예체육관에서는 태권도를 통한 올림픽 정신 보급을 주제로 조정원 WTF 총재와 장주호 한국올림픽아카데미(KOA) 회장의 특강이 실시되고 8일에는 태권도 '한국 길라' 보네코랄 하디(이란), 우정위(중국)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성공 사례 발표가 잇따른다. /김여울기자 wool@